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광주 육상, 한발 더 뛰어올랐다

김덕현

광주시청 육상팀, 체전서 금3·은4·동1
김덕현 2관왕·배찬미 세단뛰기 2연패
박태경, 110m 허들 대회 신기록 수립
男 400m 릴레이 최강 경기도와 명승부

전국 최강을 자랑하는 광주시청 육상팀의 질주는 계속된다.

광주시청 육상팀(감독 심재용)이 최근 제주에서 끝난 제 9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3, 은4, 동 1의 성적을 냈다. 역대 최고 성적을 냈던 2012년 금 7, 은 2, 동 1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 인천에서 수확한 금3, 은3, 동1의 성적에 은메달을 하나 더 하며 질주를 이어갔다.

"아쉬움은 남지만 육상 강팀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미래를 보았다"는 평가다.

이번에도 광주시청 육상팀은 도약종목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과시했다.

한국 도약종목의 대들보 김덕현은 남자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에서 여유롭게 금메달을 뛰어넘었다. 멀리뛰기에서 8.04m를 날아오른 김덕현은 세단뛰기에서는 16.38m을 기록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3개 대회 연속 2관왕이기도 하다.

배찬미의 금메달 도약도 있었다. 빗속에서 펼쳐졌던 여자 멀리뛰기에서 동메달에 머물렀던 배찬미는 세단뛰기에서 13.46m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활짝 웃었다. 대회 2연패다.

베테랑 박태경은 남자 110m 허들에서 13.81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대회 신기록(13.59)을 작성한 경북대표 김병준(포항시청)에 이어 다시 한번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해머던지기에 출전한 박영식도 67.10m를 던지며 광주체고·조선대시절을 더해 9번째 전국제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성은 남자 높이뛰기에서 은메달을 넘었다. 금메달에서 한 발이 부족했던 만큼 아쉬움이 남는 은메달이다. 이성은 1위를 차지한 경북대표 강성모(안동시청)와 나란히 2.10m를 뛰어넘었지만 강성모가 먼저 바를 넘으면서 금메달을 내줘야 했다.

남자 400m 릴레이에서 나온 은메달도 값졌다. 트랙에 오른 정현석, 김민균, 송만석, 임희남은 전국 최강 팀으로 꼽히는 경기대표와 명승부를 연출했다.

세 번째 주자까지 1위를 지켰던 광주시청 육상팀은 100m 한국 신기록 보유자인 경기대표 김국영(안양시청)의 마지막 스퍼트에 금메달을 눈앞에서 놓쳤다. 하지만 8개의 실업팀이 한 팀을 구성하는 경기도의 막강 전력을 감안하면 단일팀 광주의 돋보이는 질주였다.

무엇보다 부상으로 고전했던 임희남이 제 기량을 찾아가면서 내년 시즌에 대한 전망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배찬미

PGA 챔프 배상문, KPGA서 피날레

내일부터 신한동해오픈 출전…상금 1위 김승혁과 격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챔피언 배상문(캘러웨이)이 한국프로골프(KPGA) 시즌 마지막 대회 신한동해오픈에서 국내팬들에게 인사한다.

배상문은 6일부터 나흘간 인천 송도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파72·7320야드)에서 열리는 신한동해오픈에 출전, 상금 랭킹 1위를 달리는 김승혁 등과 격돌한다. 미국 무대에 진출한 뒤 2013년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과 올해 프라이스닷컴 오픈을 제패한 배상문은 디펜딩 챔피언이다.

배상문은 지난 5월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 출전한 이후 5개월여만에 한국을 찾았다. 당시 배상문은 32강전에서 패하며 초반 탈락해 실망감을 안겨줬지만 PGA 투어 2014-1015 시즌 개막전인 프라이스닷컴 오픈에서 우승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국내 대회에 출전한다.

배상문의 2연패를 저지하기 위한 선수들도 만만치 않다. 올 시즌 한국오픈을 포함, 국내 투어에서 2승을 올린 김승혁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도카이 클래식까지 우승하는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시즌 상금 5억4800만원으로 1위를 달리는 김승혁은 총상금 10억원, 우승 상금 2억원이 걸린 이번 대회 우승으로 생애 첫 상금왕에 도전한다.

상금 랭킹 2위(4억1900만원)인 박상현(메리츠금융그룹)도 우승만 한다면 역전이 가능해 국내 투어 상금왕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최우수선수에게 주는 발렌타인 대상 부문의 경쟁도 치열하다. 올 시즌 나란히 2승씩을 나눠가진 박상현과 김승혁, 김우현(23·바이네르)

이 1~3위까지 포진했다. 박상현은 3260점, 김승혁은 3063점, 김우현은 2700점으로 이 대회 우승자에게는 1000점이 주어진다.

이 밖에 일본 투어에서 활약하는 김경태(신한금융그룹)도 출전, 대결을 벌인다. 이번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었던 PGA 투어의 루키 김민휘(신한금융그룹)는 미국에서 열리는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으로 방향을 돌렸다. /연합뉴스

아마 야구감독 '지역출신 전성시대'

동국대 이건열 체전 2연패·인하대 허세환 전 광주일고 감독 '銀'

지역 출신 아마 지도자들의 전성시대다.

지난 3일 제주 종합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체전 야구 일반부 결승은 서울대표 동국대와 인천 대표 인하대의 승부로 전개됐다.

이 경기에서 동국대는 3개의 3루타 포함 장단 12안타를 몰아치며 8-1 승리를 거두고 지난해에 이어 전국체전 2연패를 달성했다. 올 시즌 4번째 우승이기도 하다.

동국대의 시즌 4관왕의 위업을 만든 이는 타이거즈의 타자로 뛰었던 이건열 감독이다. 마지막 벽을 넘지 못했지만 인천에 값진 은메달을 안겨준 인하대는 허세환 전 광주일고 감독이 지휘하고 있다.

이건열 감독은 모교 부임 후 2년 동안 무려 7차례 전국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아마 야구계에서 신흥 명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서재응·김병현·최희섭 '빅 리거 3인방'을 배출한 명감독으로 유명한 허 감독도 약체로 꼽히던 인하대를 건실한 팀으로 만들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체전 우승과 준우승은 물론 동메달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활약했던 지역출신 지도자들의 몫이었다. 김준환 감독이 이끄는 전북대표 원광대와 차동철 감독이 사령탑으로 있는 충북대표 건국대는 4강에 진입하면서 동메달을 가져갔다.

4강에 오르기까지 우천으로 인한 추첨승 등 행운이 따르기도 했지만 원광대와 건국대는 각각 올 시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와 춘계리그 준우승을 기록하는 등 대학리그 강호로 자리하고 있다.

고등부에서는 광주일고의 김선섭 감독이 은메달을 이끌었다. 올 시즌 광주 고교야구가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광주일고는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예상을 깨고 결승에까지 진출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대학 야구 4관왕을 달성한 동국대 이건열 감독은 "고등학교, 프로 1·2·3군에서 지도자로 경험을 쌓았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들의 마음을 읽고 이들의 장점을 키운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또 "동국대의 경우 일반 수업도 많이 참여하는 등 운동 시간이 많은 편이 아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잡아당겨봤자 스스로 발전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체력적인 부분을 강조한다"며 "부상 방지도 우선으로 하고 있다. 7번 우승을 하면서 한 투수에게 100개 이상 공을 던지게 한 경우는 두 번 밖에 없다. 아프지 않고 자신의 몫을 다할 것, 지더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 하다 보니 선수들이 스스로 성장했다. 특별한 전력이 없는 것 같지만 4관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다"고 설명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ML FA 랭킹 강정호 33위·김광현 116위

美 야후스포츠 평가

한국시리즈를 마치고 메이저리그 무대에 도전하는 강정호(27·넥센 히어로즈)가 미국 언론의 자유계약선수(FA) 평가에서 33위에 이름을 올렸다.

왼손 투수 김광현(26·SK 와이번스)은 강정호보다 훨씬 낮은 116위에 자리했다.

포털사이트 야후스포츠에 글을 쓰는 칼럼니스트 제프 파산은 4일(한국시간) 스토브리그를 달굴 FA의 랭킹을 매겼다.

강정호는 전체 165명의 FA 중 33위를 달렸다. 야수 중에서는 18위, 유격수로는 핸리 라미레스(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제드 라우리(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아스드루발 카브레라(워싱턴 내셔널스)에 이어 4번째다.

파산은 강정호에 대해 "유격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파워히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한국 리그의 최우수선수(MVP)에 대한 의문은 이외에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어느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느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출신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한 야수는 추신수, 최희섭 정도"라며 "그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김광현에 대한 평가는 이보다 훨씬 박했다.

김광현을 FA 랭킹 116위로 평가한 파산은 "부상 전에는 한국에서 압도적인 구위를 자랑했다"며 "지금 상황에서 그에게 구원 투수 이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위험부담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팀 SK가 메이저리그팀들이 내놓으려는 것보다 더 많은 포스팅 금액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높은 대가가 따르는 투자라고 분석했다.

한편, 아시아 출신 FA 선수 중에는 일본프로야구의 마에다 겐타(히로시마 도요카프)가 가장 높은 14위에 올랐다. /연합뉴스